

에도시대 町人 남자복식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en's Costume of Chōnin in Edo Period

박 옥 련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Park, Ok Ryun
Dept. of Clothing and Design, Kyung-sung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reciate Japanese clothing and ornament of the men's costume that showed a unique style of Japan as well as a mixture of foreign civilization in Edo period. The data related clothing, ornament and art of Japan were collected from books and slide films that had been studied in Japan, because the data studied in Korea were not enoug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aracteristic is the dualism. The dualism was shown in the social class, estheticism and originality. In terms of the social class, the feudalism remained through their heraldry or mark of organization even though it was broken down. In terms of estheticism, it showed the coexistence of gorgeousness and plainness. In terms of the originality, it showed the coexistence of original Kosode and Kappa under the influence of Southern barbarians' mode. Second characteristic is the utility. Chōnin was needed to the functional clothing because of its social position that had much activity. Therefore, the utility was shown in a simple silhouette of Haori and Hanten and in its way of wearing.

Key words : Edo period, chōnin, Kosode

I. 서론

일본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역사적인 견해 차이로 교류가 드물었으나, 최근 들어 양국간의 관심과 교류 증대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한 여러 종류의 서적들의

출간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의 문화차이를 비교하는 TV프로그램의 증가 등은 예전에 일부 젊은 층에게만 관심분야가 되었던 일본문화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 나라의 생활 전반과 사상 등을 엿볼 수 있는 복식을 통해서 일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일본 복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미자

Corresponding author : Park, Ok Ryun
Tel : 051) 620-4140, Fax : 051) 623-5248
E-mail : ylpark@star.ks.ac.kr

*본 논문은 2001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993)의 「우리나라 삼국시대 의복과 일본 의복에 관한 연구」, 박미애(1994)의 「개화기 일본의복의 양장화에 관한 고찰」 등 시대에 따른 복식관련 연구와, 이화영(1992)의 「일본직물에 관한 고찰」, 조수현(1995)의 「현대 한복지와 기모노 직물에 응용된 전통문양의 비교연구」 등 직물관련연구, 이행화(1999)의 「일본小袖에 나타난 문양에 관한 연구」 등 문양에 관련된 연구가 있으나 아직 미흡한 편이며, 특히 일본복식을 대표하는 小袖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일본사회에 대내외적으로 변화가 많았던 에도시대(江戸時代) 복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독특한 복식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통복식인 기모노가 성립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외국문화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양식이 구축되는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중에서도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새로이 주도권을 잡게 된 町人 남자 복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문헌자료가 충분치 않아 일본에서 연구된 일본복식, 미술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외에 역사관련 서적과 슬라이드 자료등을 이용하였다.

연구내용은 첫째, 에도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町人 계급의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町人남자복식을 일상복과 특수복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시대적 배경

에도시대는 일반적으로 아쓰치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를 이어, 도쿠가와(德川家康)가 征夷大將軍에 임명되어 幕府를 개설한 1603년부터 15대 장군 德川慶喜가 정권을 조정에 반환한 1867년까지 265년간을 가리킨다(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982).

德川幕府는 장군을 정점으로 하는 막번체제¹⁾를 확립하고 사농공상의 신분질서를 엄중히 하여 봉

건사회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따라서 전국을 200이상의 다이묘령(大名令)과 막부 직할령으로 분할하고, 무사는 다이묘(大名)²⁾의 성관이 있는 성읍에 거주시켰기 때문에 소비도시로서의 성읍이 다수 생겨났다.

이 시대는 또 엄격한 신분제도의 사회였으며 사농공상 중 인구 5~6%가 무사계급이며, 이들이 80%이상의 농민과 5~6%의 공상을 지배하였다. 무사계급도 장군을 최고주권자로 하여 여러 계층으로 구별되고, 동시에 철저한 주종관계가 성립되었다(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982). 이 시대의 사회계급은 원래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중국적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엄격한 사층(四層)계급구조였으나, 토지 생산물에 의존하는 무사나 농민이 상품경제에 맡겨들으로써 궁핍해지는 한편, 상업자본을 장악하는 상인의 힘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전체적으로 町人の 사회적 지위는 점차로 향상되어 가게 된다(민두기, 1994). 따라서 상품경제의 발달로 인해 町人の 활동이 활발해 봉건 사회에서 피지배 계층인 町인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됨에 따라 계급상의 순서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町인이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면서 사회뿐 아니라 예술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겐로쿠(元祿)문화와 카이세이(化政)문화를 들 수 있다. 겐로쿠문화는 17세기말부터 18세기 초에 걸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문화이다. 교토(京都), 오오사카(大阪), 에도(江戸)를 중심으로 한 도시발전과 그 배경이 문화의 추진력이 되었고, 귀족·무가 문화와 달리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성이 넘치며 활기에 찬 문화였다(박경희, 1998). 또 사치풍조를 떠면서도 의식을 비롯한 여러 생활 양식이 문화로 표현되었고, 극장이나 출판이라는 대중매체가 성립되었다. 문예 부문에서는 도시 상공인의 향락과 경제생활을 생생히 표현했고, 미술에서는 풍속화가 나왔으며, 友禪染라는 염색법이 발명되어 화려한 겐로쿠풍속을 만들어 내었다. 이들은 사실을 중시하고 사물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현실에 대처하려 했다. 즉, 봉건

1) 번(藩) : 다이묘의 영지 또는 그 관할조직.

2) 다이묘(大名) : 1만석 이상의 독립된 영지의 소유자 - 옛센스 일한사전(1992), 민중서림, p. 1317.

질서나 차별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성을 최대한 존중했다.

카이세이문화는 에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문화로 신흥상인이나 하층상공인을 기반으로 주로 도시인의 생활이나 심정을 주제로 하는 문화가 전개되었는데,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경향이 강했으나, 학문이나 사상에 과학적·고증적 정신이 싹트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봉건사회의 원숙한 시대를 반영해서 저속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근대로의 태동을 보여주는 사고방식을 낳게 된다.

따라서 에도시대는 엄격한 계급사회였으나, 상품경제로 인한 계급상의 하극상 풍조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서민문화인 겐로쿠문화, 카이세이문화라는 인간을 존중하고 과학적·고증적 정신을 싹트게 하여 근대로의 사고 방식을 심어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III. 町人の 특성

町人이란 상업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계급을 갖게 된 상인과 직장(職匠) 등을 총칭한 말이다. 町人이 일본사회에서 출현한 것은 일반적으로 근세초기, 무로마치(室町)시대 말기에서 모모야마(桃山)시대까지 일컬어지고 있다(長基巖, 1994).

에도시대에는 봉건제도사회로 피지배 계급의 町人들은 엄한 신분제도 아래에 있었으나 화폐경제의 발달에 의해서 교토, 오오사카, 에도 등의 도시에서 町人문화를 개화하게 된다(高田倭男, 1995.). 또한, 상품경제와 町人の 사회적 지위 향상은 지식의 발달이 널리 서민층에도 미치게 된 역사적인 근원이 되었다. 따라서, 도시 町人の 문화의 세계가 발달되어 町人문화가 융성해졌고, 서민이 처음으로 시대문화를 전면적으로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서민문화 즉 정인 예술의 전성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町人の 지위상승은 복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각의 신분에 따라 기모노의 옷감이나 그림에 차등을 두던 예전과 달리 에도시대 후기에 와서는 계급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부(富)가 계급기준이 됨에 따라 계급간 유사한 스타일의 기모노를 착용하게 된다. 또한 町人에 의해 주도되는 화려한

서민예술의 발달로 인해 색상과 문양이 화려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정인 사이에도 에도와 오오사카의 町人들은 생활태도에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무사와 大名을 상대로 하는 에도의 町人들은 돈을 몰 쓰듯 하는 도락적 경향이 있는데 비해 오오사카의 町人들은 실용적이고 검약·근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에도의 町人들은 食道樂, 오오사카의 정인들은 옷치장이 성행하였다. 멋의 유행에 민감한 이들에 의해 여인의 머리 문양, 허리띠의 문양·무늬 등이 급격히 변화하였고, 남자들도 배우나 멋쟁이들의 문양을 재빨리 흉내내었다(민두기, 1994).

따라서 에도시대 町人은 계급제도상에서는 피지배계급으로써 제재를 받는 위치였으나 화폐경제에 따른 상업의 발달로 실제적인 힘이 있는 계급이었고, 지배계급과는 달리 형식에 매이지 않는 그들만의 문화를 누림으로써 예전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복식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지역에 따라 조금의 차이를 보여 화려하면서도 검소한 두 가지 양상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에도시대 町人남자복식을 살펴봄으로써 일본복식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IV. 에도시대 町人の 남자복식에 대한 고찰

에도시대 町人の 남자복식은 다양한 종류로 나타나는데, 크게 일상생활에서 착용되는 일상복과 특수한 용도로 착용되는 의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일상복과 특수복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고 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의의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상복

町人の 일상복 종류에는 하오리(羽織), 반텐(裨

纏), 法被, 단젠(丹前), 가빠(合羽), 小袖 등 6가지로 크게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하오리(羽織, はおり)

하오리는 위에 입는 짧은 겹옷으로서, 하오리에 바지를 입는 차림새는 무사에게는 일상복이었으나 町人에게는 예복이었다.

착장방법에는 小袖에 하오리와 바지를 착용하거나 小袖에 하오리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오리는 원래 무가에서 휴식할 때에 착용하거나 여행 등을 하러 할 때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착용한 것으로, 원래는 예복이 아니었으나 이것이 町人에게 보급되어지면서 예복으로 바뀌게 된다.

하오리는 겹으로 된 것과 홑으로 된 것이 있고, 4월에서 무더운 여름에는 홑하오리(單羽織), 9월 9일부터 3월 그믐날까지는 겹하오리(袷羽織)가 착용된다.

하오리의 여밈에 사용된 가슴띠는 초기에 같은 천으로 만들어진 띠가 사용되어졌으나,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하오리는 소재 및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가죽하오리(革羽織)

가죽하오리는 에도에는 오래 전부터 착용하였으나 上方에서는 착용하지 않았고, 추운 날이나 화재장소에서 착용하였다. 안과 겹이 같은 색인 것과 겹을 무지로 하고 안에는 다른 색을 사용한 것, 小紋이나 비단을 염색하여 나온 것도 있다.

가죽하오리의 크기는 종류 町人은 일반적인 크기이고, 使用人이나 鳶職은 그것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 使用人의 가죽하오리는 등의 중앙과 걸면으로 되접어 꺾은 옷깃에 主家の 문양이나 기호, 家名の 일부를 표시하였고, 鳶職의 革羽織은 같은 문양으로 조직의 마크를 자수하였다. 따라서 옷에 주가의 문양이나 기호, 家名の 일부를 새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변화로 인해 하극상의 풍조를 보이기도 하나 소속사회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오히려 엄격한 신분제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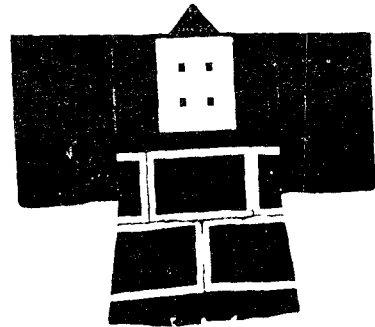
가슴띠는 실을 엮은 둥근 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끈이 달린 부분에 옷깃과 길의 봉합부

분을 한 치 정도 열어 놓아 하오리를 안을 반대로 착용한 경우에는 띠가 반대쪽에 나오게 하였다. 이것은 가죽하오리가 안팎을 다 쓸 수 있게 착용한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에도시대 町人들의 실용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은 田字무늬가 있는 가죽하오리로 鳶職이었던 岩田家에 전래하는 것으로서, 主家の 家名을 표시하기 위해, 뒷면의 등 중앙에 「田」字를, 자락에는 「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벽돌을 쌓아 놓은 듯한 문양의 무늬가 나타나있다. 따라서 소속사회를 명확히 표시함을 알 수 있고 하극상의 풍조로 인한 계급체계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박쥐하오리(蝙蝠羽織)

박쥐하오리는 소매길이가 길고 길의 길이가 짧은 것으로, 박쥐가 날개를 편 것 같은 문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무가의 소년이나 젊은이들이 착용했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중기인 明和경까지 착용되었다(中井長子·相川佳茅子 공저, 1976).



<그림 1> 田字무늬가 있는 가죽하오리

2) 반덴(裨纏, ばんてん)

반덴은 약식 복장과 방한용으로 착용되었는데, 추운 날이나 화재장소에서는 가죽으로 된 것을 착용하였다. 형태상 특징으로 시로시반덴(印 裨纏, しろしばんてん), 나가반덴(長裨纏, ながばんてん)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시로시반덴(印 袴纏, しろしばんてん)

목면의 반덴으로 홉으로 된 것과 겹으로 된 것이 있고 누빈 것도 있다. 등의 중앙에 소속을 나타내는 문양이나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강호에 주로 薦職, 大工, 左官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하였고, 소방수가 화재 장소에서 착용하였다(長基 嚴, 1994). 시로시반덴 역시 소속을 나타내는 문양과 기호표시로써 계급체계에 있어서 엄격성을 엿볼 수 있다.

(2) 나가반덴(長 袴纏, ながばんてん)

나가반덴은 옷섶은 없고, 옷깃이 머리에서 자락으로 이어져 붙은 형태를 가리킨다. 목면으로 안을 대어 만든 것으로 겹의 등과 옷깃에는 소속 표시 등을 염색하여 나타내고, 맹황이나 차색의 안을 대고, 2가닥의 목면사로 전체에 자수하였다. 세로방향에 가늘게 자수하는 게 일반적이거나, 마 앞이나 귀갑 등의 문양을 자수한 것도 있고, 또 누비로 된 것도 있다. 일반 町人も 나가반덴을 착용하나, 화재시에 착용하였다(長基 嚴, 1994). 화재시 착용된 화재장속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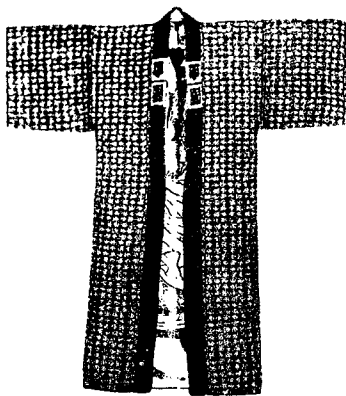
<그림 2>는 나가반덴의 안의 모습이고 <그림 3>은 겹의 모습이다. <그림 2>는 작업 중에 입는 안쪽 면으로 무늬가 수수한데 비해, <그림 3>은 일

을 끝낸 뒤 입는 겹면으로 화려하고 큼직한 무늬와 함께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양면활용에서 실용성과 함께 그들만의 멋을 느낄 수 있으며, 소속 표시를 나타내는 기호나 마크를 장식하는 것에서 하오리와 마찬가지로 신분사회의 계급체계의 엄격성을 엿볼 수 있다.

3) 法被(はっぴ)

法被는 목면의 홉으로 된 짧은 옷으로 하오리에 서 변한 것으로, 직공 등이 입는 등이나 깃 따위에 옥호, 성명 따위를 염색한 간단한 윗도리으로써, 옛날 무가의 머슴이 입던 단젠(丹前, だんぜん)을 가리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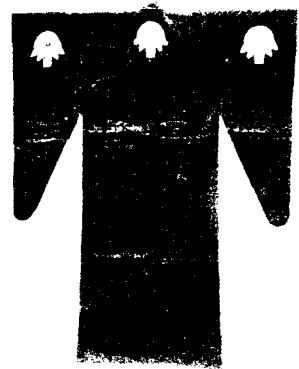
주로 염색한 목면을 사용하였으며, 가슴띠를 매었고, 넓은 소매가 있다. 上方에서는 긴 法被를 화재장소에서 사용하나, 에도에는 文化이라 나가반덴으로 대신하였다. 法被의 등에는 문양이나 가문기호에 의한 마크를 배치하였고, 옷자락에는 큰 횡근이나 화재를 막는다는 의미로 立浪문양 등의 물을 표시하는 문양을 배치하였다. 法被는 주인집의 마크나 집안 기호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에서 상가의 착판으로 볼 때 「着板」이라 불리어졌다(守田公夫, 소화30년). 길이가 긴 것은 「六尺着板」이라 불리어졌으며, <그림 4>의 모습을 살펴보면, 등과 어깨에 커다란 主紋이 새겨져 있고 소매진동은 좁아져 활동하기 편하게 되어있다.



<그림 2> 나가반덴(안)



<그림 3> 나가반덴(겹)



<그림 4> 六尺着板

4) 단젠(丹前, だんぜん)

단젠은 솜을 두겹게 둔 소매 넓은 일본 옷으로 방한용의 실내복 또는 잠옷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에도에서는 「溫袍」라고도 하였고, 에도神田의 松平丹後守의 上屋敷前に 風呂屋이 있었는데, 유녀가 손님 垢落이나 完春을 행하고 있다. 당시 風呂屋에 놀러 가는 것을 「丹前に 걸리다」라 하여, 거기에 출입하는 유객의 풍속을 넓게 丹前風이라 불렀고, 이것은 남자복식의 유행원이었다(鷹司綸子, 1991).

이런 丹前風을 모방하여, 면을 약간 두겹게 누빈 넓은 소매의 의복의 하나로 단젠이라 불렀고, 이것은 소수보다도 크게 만들어서, 방석처럼 군데군데 실로 꿰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다.

단젠은 남녀에 의해 사용되었고, 추울 때는 小袖의 위에 하오리를 입거나, 집에서 쉴 때 사용한다. 얇은 비단 혹은 교목면이 주로 사용되어지나, 안에는 표색의 견과 목면을 사용하였다. 남성용에는 흑색의 八丈의 깃의 반을 두르는 것이 많고 흑색벨로드를 사용한 것도 있고, 鳶職 등의 丹前은 조지마크 등을 염색한 것도 있었다(長基 嚴, 1994).

5) 小袖 (こそて)

에도시대에 있어서 小袖는 가장 큰 특색이 있는 의복이었는데, 사회계층에 의해 크게 차이가 나는 의복의 형태가 小袖형식으로 집약되어져 지금의 일본 전통복식인 기모노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착장방법으로는 小袖에 하오리와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예장용 의복이 되고, 小袖에 바지, 小袖에 하오리, 바지, 小袖평상복 순으로 간단한 차림이 된다.

에도시대에는 小袖의 발달과 함께 여미 도구인 대의 발달도 화려하게 전개되었는데, 특히 소재나, 매는 법에 대한 다양한 전개가 보여지며 일본인들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대에 대해 살펴본 후, 小袖의 종류와 특색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오비(帶, おび)

에도시대에는 여성의 오비에 대해서는 오비의 폭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오비의 경우는 여성 오비보다 큰 변화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것은 남성 복식에 대해서 무가는 물론 町人이 의

례나 외출의 경우에는 바지를 입는 일이 많고, 따라서 기능적으로 바지를 매는 오비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많고, 또 장식적인 면에서도 오비가 여기에 차지하는 역할이 작기 때문이다. 오비의 폭은 에도 초기에는 2치정도였으나, 후기에는 또 일촌 팔,구분으로 다시 되었다. 오비의 옷감은 오비의 폭에 맞게 특별히 짜여진 것은 없고, 보통 직물의 폭으로 짜여진 것을 잘라서 사용하였다. 측면, 수자, 사롱, 용문, 포 면에 가늘고 낮게 세로꼴을 표시한 견직물인 호박, 수진, 사자, 전다 등의 견 외에도, 축전소창에서 생산한 경우의 이름으로, 경묘 조직의 선염한 면직물인 소창 등의 목면도 사용되었다. 흑, 감, 차, 쥐색 등의 무지나, 비단, 소문으로 나타난 것이 많다(小池三枝의 1인, 1989).

(2) 紋付小袖(もんつきこそて)

紋付小袖란 小袖에 가문의 문양을 부착한 것으로, 에도시대 町人은 정식의 예식 때 무사의 예복 차림을 하였는데 이 때 반드시 紋付小袖를 착용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복차림이 아닌 경우에도 착용하기도 하였다.

上方에는 부유한 町人은 羽二重과 용문 비단, 중류이하의 町人은 명주나 목면을 사용하였고(長基 嚴, 1994), 에도에는 중류 이상의 町人と 하층의 町人 약 반수가 羽二重을 사용하였다. 도회의 町人은 문양이 달린 小袖를 정식예식 때에 사용하였다. 또 上方에는 목면의 문양 달린 小袖를 평상시 착용하고, 에도에는 평상에도 견으로 된 문양 붙인 것을 사용하였는데, 화려함과 검소함을 추구하는 이중성을 엿볼 수 있고, 지역적 특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紋付小袖의 바탕색은 흑색이 대부분이었으나, 농도가 풍부한 청색이 사용 되기도 하였다. 안감은 쥐색이나 묽은 남색의 견을 사용하고, 속에도 동색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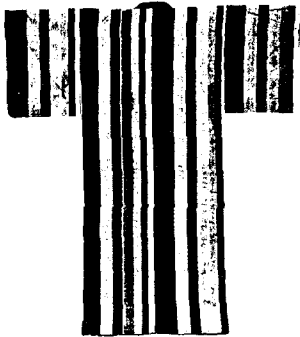
(3) 縞小袖(こうこそて)

경사스런 장소에서의 약식복식은 무가에서는 광택이 있는 명주로 된 상전호의 小袖를 사용한 것에 비해, 부유한 町人은 에도시대 면직물의 하나인 唐棧(とうざん)을 사용하였다. 唐棧은 에도시대 초기 네덜란드인에 의해 수입되어진 감색 바탕에 빨

강, 얇은 노랑의 줄무늬를 세로로 넣은 무명직물로 명주보다는 광택은 없으나, 견과 유사한 태를 갖고, 가격은 上田綱의 5, 6배였다.

또 중류의 町人も 부유한 町人이 되려고 唐襪을 착용하였으나, 가격이 싼 국산 유사품인 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遠勝 武, 소화30년).

<그림 5>는 감색 목면지로 된 縞小袖로 흑색, 황갈색, 백색 등의 다양한 넓이의 줄무늬와 명암대비가 세련되게 보이는데, 이것은 일반 町人사이에서 유행하였고, 에도후기 町人에게 애호된 「いき³⁾」(조규화, 1994) 미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림 5> 감색 목면지의 縞小袖

(4) 木綿小袖

木綿小袖는 호목면을 사용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중류이상의 町人은 결성산의 줄무늬 있는 호목면, 사용인 등 하급의 町人은 上方에는 하내목면, 에도에는 송판목면의 비단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小袖는 가문의 문양을 부착한 紋付小袖에서 신분제도를 의식할 수 있었고, 縞小袖에 나타난 「いき」 등의 미의식과 木綿小袖에 나타난 검소함을 통해서 화려함 속에 검소함을 추구하는 지금까지의 지배계급과는 다른 독자적인 町人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6) 가빠(合羽, がば)

가빠는 소매 없는 비옷의 일종으로서, 방한복으로도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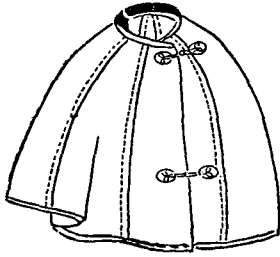
모모야마시대에 건너온 남만인의 외투 형태를 모방하여 초기에는 케이프형으로 재봉된 것으로 가빠라 불리어졌다. 가빠는 포르투갈어로 Capa의 음을 모방한 것으로 合羽는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이다. 후에 被布에 가까운 형으로 것이 나타나, 이것이 일반적인 合羽라 불리어지는 것이 되고, 망토형의 것은 ぼうずがば 또는 「坊主合羽」라 불려졌는데 坊主는 남만승을 의미하여 이 合羽가 크리스토프의 승려가 착용한 케이프에 유사한 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명칭이 유래한다(中井長子외 1인, 1976).

외투로 사용된 가빠는 일본의 독자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小袖와는 반대 개념의 의복이라 할 수 있는데 에도시대에는 포르투갈, 네덜란드에서 외국 문물이 들어옴으로써 남만모드라는 새로운 유행이 나타나게 됐고, 이것은 일본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독자성을 고수하면서도 외국 것을 받아들이는 이중성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1) 坊主合羽(ぼうずがば)

坊主合羽는 오동나무기름으로 만든 종이로 된 것과 목면제 <그림 6>로 만든 것이 있고, 후자는 특히 「引廻」라 불리어진다. 이것은 겹은 감색의 비단 또는 목면, 안에는 다색목면을 사용하여 사이에 유연한 화지를 넣어 겹으로 재봉하고, 목둘레는 같은 천으로 만든 옷깃을 만든다. 안팎의 옷감은 대형으로 재단한 옷감을 18매 정도 봉합하여 만든다. 이 좌우양단의 위와 중간 정도에 단추를 달고, 길의 안과 겹의 각 2개 부분에 단추를 걸 수 있도록 「乳」를 단다. 引廻는 町人들에게 사용되고, 여행시 착용하나, 비가 올 때에도 동유지로 만든 방주합우를 사용한다(長崎 嚴 著, 1994).

3) 이끼(いき): 강호후기에 이르러 새롭게 나타난 하나의 流風으로 무가풍에 대한 시민풍이다. 색채에 있어서는 종래의 화려한 다채로운 배합의 효과에 대해 단색 혹은 여기에 가까운 색채의 효과를 이들 색조의 복잡화, 심화의 방향으로 추구하였고, 문양에 있어서는 종래의 복잡한 의장을 표현한 문양이 있는 의상에 줄무늬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문양의 새로운 기분의 상징을 추구하였다.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94, pp. 357~359.



〈그림 6〉 坊主合羽



〈그림 7〉 半合羽

(2) 長合羽

소매 달린 습기로 길이가 길고, 자락은 복사뼈에 이른다. 겹과 홀 외에도 상반신 안을 댄 것도 있다. 長合羽는 본래, 아래에 소수 등을 착용할 때에 비나 먼지를 방지하려고 사용한 것이고, 간분(寬文) 연간에 에도의 부유한 町人이 착용하기 시작하여

호에이(宝永)연간부터는 富商의 우두머리도 착용하게 되었다. 에도시대 후기에는 무가, 의자, 승려, 명주 등도 전해져 습기를 사용하였다. 上方에는 중류町人에도 이것을 착용한다. 한편, 여성은 長合羽를 착용하지 않는다.

옷감은 겹으로 된 감색 목면이 일반적이거나, 비단

〈표 1〉 에도시대 정인 남자복식 중 일상복의 특징비교

| 종 류 | | 용 도 | 소 재 | 소속표시 문양 유무와 위치 |
|--------------------|--------------------------|--------------------|-----------------------------|-------------------|
| 하오리 羽織 はおり | 가족하오리 革羽織 | 추운날, 화재장소 | 무지, 소문, 비단 염색 | 있음 |
| | 박쥐하오리 蝙蝠羽織 | 무가의 소년, 젊은이, 상인 | | |
| 반 덴 裵纏 ばんてん | 시로시반덴 印 裵纏 しろしばんてん | 평상시 | 홀, 겹, 누빈 것 | 있음 / 등 중앙 |
| | 나가반덴 長 裵纏 ながばんてん | 추운날, 화재장소 | 홀, 누비로 된 것 | 있음 / 등과 옷깃 |
| 法 被 ほっぴ | | 추운날, 화재장소 | 홀으로 된 목면 | 있음 / 등 |
| 단 전 丹 前 だんぜん | | 방한용의 실내복, 잠옷 | 얇은 비단 교목면, 숄을 두겹게 넣은 것 | 鳶職 등의 경우 있음 |
| 소 수 小 袖 ごそて | 紋付小袖 もんつきごそて | 정식의 예식 | 상방: 우이중, 용문비단 강호: 명주, 목면 | 있음 |
| | 縞小袖 こうごそて | 약식복식 | 당잔, 당으로 불리는 목면지 | 없음 |
| | 木綿小袖 | 평상시 | 주로 호목면, 상방: 목면, 강호: 송판목면 | 없음 |
| 가 빠 合 羽 かば | 坊主合羽 ぼうずかば | 여행시, 비 올 때 | 오동나무기름으로 만든 종이, 목면 | 없음 |
| | 長合羽 | 비나 먼지 방지 | 감색목면, 비단목면, 토라면 | 없음 |
| | 半合羽 | 비 올 때 | 비단목면, 라사, 갈포,마포 | 없음 |

목면이나 면과 토끼털의 혼방사로 짜여진 토라면으로 재봉한 것도 있다. 또 무가에서는 검정이나 맹황색의 기모가 있는 두꺼운 모직물인 라사로 재봉한 것도 있으나, 町人에는 드물게 있다. 팔장견의 안을 넣은 것도 많다. 홰으로는 갈포나 맹황포, 목면 등이 사용되어진다(長崎 嚴 著,1994). 옷셔의 상하 2곳에 단추, 길에 3 곳에 乳를 달았는데 와권형으로 하여 꽃문양으로 장식하였다. 단추는 간분(寛文)부터 겐로쿠까지는 고래뼈, 쇼토쿠(正徳)경에는 놋쇠나 동, 겐로쿠 이후는 소뼈, 물소뼈, 사슴뼈가 사용되어진다.

(3) 半合羽

長合羽에 비해 길이가 짧은 경우에 半合羽라 부른다<그림 7>. 교호(亭保)경부터 무가에 출입하는 町人이 처음 사용하여 겐로쿠이후 중류이상의 일반 町人도 여성을 포함하여 착용하게 되었다. 또 에도에는 꼬마도 이것을 착용하였다. 중류이상의 町人은 평복시는 하오리에 바지차림새나 예장차림때도 비 올 때에는 半合羽를 사용한다.

옷감은 겹은 흑, 감, 표색, 천충 등이나 비단 목면 외에 라사로 재봉한 것이 있다. 홰은 갈포, 마포 등이 사용되어진다. 또 옷깃에는 흑색의 라사, 주로 영국에서 짜여지는 두꺼운 모직물인 羅世板, 토라면, 팔장견 등이 사용되어진다. 半合羽에도 長合羽와 같은 문양으로, 2군데에 단추, 2군데에 유를 단다. 목면 등의 옷감으로 재봉한 合羽를 입을 때 우산을 쓰고, 紙合羽를 입을 때에는 모자를 썼다고 말해진다(長崎 嚴 著, 1994).

이상과 같이 에도시대 町人 남자복식 중 일상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특수복

에도시대에는 일상복외에도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 의복을 볼 수 있는데, 발달된 소방제도로 인해 火消裝束이라는 독특한 형태가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유까다(浴衣, ゆかた)의 형태도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 에도시대만의 독특한 의복

으로 볼 수 있기에 일상복과 다르게 분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火消裝束 (おうぞ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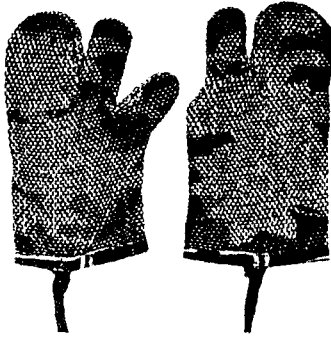
에도시대에는 소방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大名 火消, 定火消와 町火消의 세 종류가 있다. 大名 火消, 定火消는 기본적으로 무가에 의해서 구성되어 지고, 무가 땅의 소방에 해당하는 것에 비해, 町火消는 町人에 의해 구성되어지고, 町人집의 화재소화에 종사한 소화를 담당하였다.

소화에 해당하는 것은 復卦, 고인에 누비 반덴과 누비 장갑<그림 8>과 두건<그림 9>를 착용한다. 火消裨纏에는 길이가 긴 것<그림 2, 3>과 짧은 것이 있고, 목면에 목면사로 누비를 행한다. 형태는 나가반덴과 같으나, 대부분이 안팎을 다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이 표면에 무지 또는 소속한 조직을 나타내는 조연와풍의 문양, 안쪽에는 통묘에 의한 기법, 풀을 놓고 색을 삽입하는 기법으로 회화적인 표출성이 강한 문양이 나타내지고 있다. 안에 표현되어진 문양은 움직이는 드라마틱한 주제나, 기발하고 우스운 것이 많다. 물을 뒤집어쓰는 소화 작업 중 문양을 안쪽으로 하여 일하고, 소화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안을 겉으로 뒤집어서 표출성이 강한 문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長崎 嚴 著,1994). 이것은 작업 후 더러워진 쪽을 안으로 입고, 표출성이 강한 겉을 입음으로써 실용적인 기능과 동시에 그들의 개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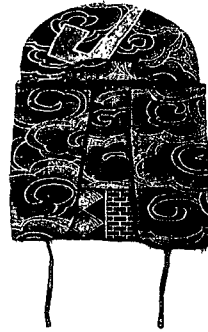
두건도 옷감, 형태, 봉제 등에는 일반의 猫頭巾와 다른 것이 아니고, 火消裝束하고, 소속한 조직을 조속와풍의 문양으로 표시하거나, 반덴, 유번과 같은 인상적인 표현으로 문양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火消裝束 중 猫頭巾은 머리부분은 솜을 넣어서 얼굴이나 후두부, 머리를 덮는 복면 등으로 만든 것이고, 누비를 한 것도 있다. 겉에는 감색 무지나 문양염의 목면, 안에는 맹황이나 차색의 목면을 사용한다.

<그림 9>는 두부를 누빈 猫頭巾로, 불을 끄는 일은 항상 위험하므로 공포감을 없애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한 문양이 많이 나타난다.



〈그림 8〉 누비 장갑



〈그림 9〉 猫頭巾

2) 유까다(浴衣, ゆかだ)

유까다는 목욕을 한 뒤 또는 여름에 입는 무명 홰옷으로, 유까다는 유까다비라(湯帷子, ゆかだびら)에서 파생된 말로써 帷子(이)는 원래는 홰의복을 가리키는 말로 湯帷子(이)는 입욕할 때 사용한 홰옷이다. 이것이 입욕 후의 땀받이용 의복이 되었고 옷감도 마에서 목면으로 변하게 되었다. 에도후기에는 목욕 후 여름 홰옷이나 帷子(이) 대신에 평상시에도 착용하게 된다(長崎 嚴 著, 1994). 목욕 후 사용하는 것은 넓은 소매(袖)로 만들어져서, 홰옷이나 帷子(이) 대신으로 입는 것은 소매(袂)를 다나, 이런 경우에도 소매 밑에 주머니같이 늘어진 부분인 袂(이)는 평상시의 단의나 유자에 의해 등글게 하고, 각수로 한다.

「守貞漫稿」에 의하면, 에도후기에는 상방에서는 백색의 유까다를 좋아하고, 소문염이나 홰치기염으로 나타내었다. 홰치기염은 하층 町人(이) 사용하고, 남성이 큰 무늬를, 여성은 작은 무늬를 사용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에도시대에는 분카(文化),

분세이(文政) 경까지는 흰색 옷감에 홰치기염, 덴포(天保)경에는 남색옷감에 작은 무늬의 홰치기염, 天保(이) 이래로 다시 흰색에 큰 무늬 홰치기염이 행해지게 되고, 남녀에 의해 이것을 사용하였다(長崎 嚴 著, 1994).

鳶職(이) 등의 사람들은 소속을 표시하는 마크를 남색 천에 홰치기염으로 염색한 浴衣(이)를 입었다. 또 에도, 上方(이)에는 비단 유까다도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흰색 천에 굵은 감색 줄무늬가 많았다. 여기서도 화려함과 검소함을 추구하는 이중성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에도시대 町人(이) 남자복식 중 특수복을 살펴 본 결과 특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V. 결론

에도시대는 대내적으로 볼 때 막부체제 아래 상

〈표 2〉 에도시대 정인 남자복식 중 특수복의 특징비교

| 종 류 | 용 도 | 소 재 | 소속 표시 문양 |
|---------------------|------|----------|-------------|
| 火消裝束 おうぞく | 화재 시 | 누빈 목면 | 있음 |
| 유 까 다 浴 衣 ゆかだ | 목욕 후 | 홰으로 된 무명 | 鳶職 등의 경우 있음 |

업의 부활로 町人이라는 계급이 경제, 문화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변화를 겪는 시기이고, 대외적으로 볼 때 쇄국에서 개화로 이어지는 변화를 겪는 시기였다. 따라서 이런 시대의 영향이 복식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중 에도시대 町人の 남자복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에도시대의 町人 남자 복식에서는 이중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첫째, 계급체계에 있어서의 이중성이다. 町人の 부활로 인해 복식에 있어서도 계급체계가 붕괴된 것처럼 보였으나, 의의류인 하오리, 반덴, 法被와 火消裝束에서 의복에 가문이나 조직의 마크 등을 표시함으로써 엄격한 봉건적 계급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복식에 있어서 계급체계의 이중성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복식미 추구에 있어서 이중성이다. 피지배 계급인 町人들의 경제적인 부흥으로 인해 문화가 발달함으로써,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화려한 미를 추구하였는데, 하오리의 소재나 가슴 띠의 화려함이나 紋付小袖, 鑄小袖의 소재에서도 화려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鑄小袖의 색채나 무늬, 목면소수의 착용을 볼 때 검소함을 추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고가의 소재지만 수수한 형태로 보이는 唐棧鑄小袖를 볼 때 화려함 속의 수수함을 추구하는 이끼 「いき」 미의식도 엿볼 수 있으므로, 복식미의 추구에서 이중성을 알 수 있다.

셋째, 독자성에 있어서의 이중성이다. 가장 일반적인 독자적인 의복 小袖와 외국에서 전래된 의복인 가빠의 공존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의복의 공존 외에도 외국에서 전래된 의복과 일본 전통의복의 공존현상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독자성 추구에 있어서 이중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2. 에도시대 町人の 남자복식에서는 실용성이 나타난다. 町人は 활동이 많은 신분이었기에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의례적인 의복보다는 편안한 의복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의의류인 하오리, 반덴 등의 형태의 단순함에서 실용적인 면을 엿볼 수 있었고, 특히 火消裝束의 의의류일 경우에는 양면을 사용함으로써 일할 때는 수수한 안쪽을 걸으

로 입고, 귀가시에는 겉쪽으로 돌려 입는 면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에도시대 町人 남자 복식을 살펴본 결과 이중성과 실용성을 살펴 볼 수 있었는데, 이중성은 계급체계, 미의식 추구, 독자성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 역사 중 대내외적으로 사회 변화가 일어난 에도시대 중 새로이 부각된 町人の 남자복식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일본복식 문화의 특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町人남자복식에 대한 좁은 범위와 자료부족으로 인해 일본복식 전반을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다양한 시대와 계급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에도시대, 정인(町人), 소수(小袖), 고소데

참고문헌

김미자(1993), 우리나라 삼국시대 의복과 일본의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미자, 한국 기본포와 일본 고소데에 관한 연구, 복식43호.
 박미애(1994), 개화기 일본의복의 양장화에 관한 고찰, 세종대학교.
 이화영(1992), 일본직물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수현(1995), 현대 한복지와 기모노 직물에 응용된 전통문양의 비교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이행화(1999), 일본소수에 나타난 문양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20권(1982), 동아출판사.
 민두기(1994), 일본의 역사, 지식산업사.
 박경희(1998),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도서출판 일빛.
 이자연 역(1999), 일본복식사, 경춘사.
 조규화(1994), 복식미학, 수학사.
 鷹司綸子(1991), 신편복장문화사, 朝倉書店.
 高田倭男(1995), 복장의 역사, 中央公論社.

図説 일본복장사(소화30년), 遠勝 武, 建帛社.

小池三枝외 1인(1989), 일본복식사, 光生館.

守田公夫(소화30년), 일본피복문화사, 紫田書店.

長崎 巖 著(1994), 日本의 美術10 , NO341, 至文堂.

中井長子·相川佳茅子 공저(1976), 복장사서양·일본
편-, 相川書房.

(2002. 2. 4 접수)